

OECD Education 2030을 적용한 소통세대 디자인 탐색 연구 : 북한 소학교 국어 1학년 교수내용을 중심으로

유 시 은*

대구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남북 사회 통합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교육 국어교과 교료를 위한 “공유공간”의 준비 및 운영역량의 디자인으로서, 미래 통일학 세대의 소통스킬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공유공간은 글로벌 규모의 OECD 2030 “공유공간” 개념을 한반도 지역의 남북간 실정에 적합하게 원리 적용하였다. 또한,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통조력 도구를 디자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성 원리와 OECD 2030을 기반으로 한 공유공간에 대한 적합성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소통스킬의 상태 변화과정을 순서도로 제시하였다. 셋째, 소통조력 도구로서 “발달-사회제도적 필터” 및 16개 변인으로 구성된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과목에 개발한 필터를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일학 소통세대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 간 교육 통합뿐만 아니라 남한 내 다문화 및 세대간 소통스킬을 제고하는 관점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지향에 적합한 소통스킬을 갖춘 통일 인재 육성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소통세대 디자인, OECD Education 2030, 공유공간, 소통조력 도구,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

이 논문은 2021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295).

* 주저자: 유시은/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연구교수/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E-mail: seyoun1225@naver.com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사회 통합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교육 국어교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 준비 및 운영역량의 디자인으로서, 미래 통일학 세대의 소통스킬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공유공간(shared space)이란, 글로벌 규모의 OECD 2030 “공유공간” 개념을 한반도 지역의 남북간 실정에 적합하게 원리 적용한 개념이다(OECD, 2019, 22). 남북 공교육 국어교과 통합 준비를 위한 교류공간(이하 “교류공간” 또는 “공유공간”), 즉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통조력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OECD 2030의 “공용어(a common language, OECD, 2019, 22)” 개념을 남북 공통의 한글에 접목한 것으로, 그 공유공간, 즉 교류공간의 소통조력 도구이다.

남북 통일은 헌법 제3조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분단이 21세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역량으로 사회통합, 나아가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민족적 및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주권이다. 이에 근거하여 남북 교류 및 동반 성장을 위한 통일학 세대가 활동한지도 30여년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미래 전망은 결코 밝다고 볼 수 없다.

“통일학”이라면 거의 동시에 “북한학”이 연상될 것이다. 후자가 대체로 정치학 범주의 국제지역학이라면, 전자는 DMZ을 사이에 둔 민족적 색채가 강해 이론적으로는 군사 및 평화적 옵션도 망라된다. 또한,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제학술토론에 대한 현실적 장벽도 놓여 있다(아시아기자협회, 2014. 10. 26). 그 만큼 전자의 발전을 위해 국내의 주도적인 소프트파워 역량은 더욱 더 중요하며 분발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거시적인 시선으로 국

내 통일학의 세대적 개념을 상정하고, 21세기 역량을 갖춘 새 세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학 관련 세대 구분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김영수, 2006; 고유환, 2015). 필자는 동서 냉전 해소 및 남북 교류 전후를 기준으로 통일학 세대를 분단세대, 교류세대, 소통세대로 명명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활동한 “통일학 분단세대(이하, 분단세대)”는 한반도 북위 38도선 북한에서 태어나 보통교육을 받고, 남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군사정권 종식 후 국민의 정부에서 통일부 전 장관을 지낸 강인덕과 임동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냉전대결의 환경에서 사회주의 체제 및 북한 관련 연구에 종사한 학자 출신도 이 세대에 포함된다¹⁾. 이 시기 북한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한적 영역을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남한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대적 의존관계’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단세대의 관점과 접근은 그 후대인 통일학 교류세대의 근간이 되었다.

통일학 교류세대(1990~2018년, 이하, 교류세대)는 베를린 장벽 해체 사건과 같은 냉전 해사로 본격화되었다. 이 세대의 광범한 통일 논의에 힘입어 통일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연구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이 세대의 특징은 군사적 대립과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 북주민의 대량 탈북 및 남한 이주 등으로 한반도 환경의 유래 없는 급변이라 할 수 있다. 단, 선대의 통일학 접근이 극소수 엘리트 참여에 비하여, 교류세대는 연구 및 대상 간 접촉면 규모와 개방된 환경에서 활동했다. 또한, 연구자의 양적 및 다학제적 접근, 학부 및 대학원 개설 등 시대적 전환 및 전성기 현상이

1) 고유환(2015, 32)은 냉전시대 북한 연구 1세대로 북에서 월남한 김창순, 김남식, 국내 연구자인 양호민, 재미학자인 서대숙, 이정식을 꼽았다.

나타났다. 즉, 2006~2017년에 걸친 6차례의 북한 핵실험 및 이와 연동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비롯한 남북 관계 경색의 극대점인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 소프트 역량 준비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자의 취업 명분 상실에 따라 북한학과는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되었다(테일리NK, 2011. 04. 01; 한국일보, 2017. 04. 01).

상기와 같이, 교류세대는 세계적 격동 속에서 분발과 좌절의 수직 기복을 체험했다. 연이어, “신냉전” 환경으로 급변하는 현재, 교류세대와 그 선대인 분단세대 간 소통의 질, 통일학 내부 간 상태를 성찰해 보면, 미래지향적인 후속세대 양성 및 소통스킬 준비 부족을 발견할 수 있다. 소통 없이 사실상의 의미 있고 질적인 그 어떤 교류도 불가능하다. 달리 말해, 불확실한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특히 남북 간 소통스킬 준비 없이 국제적 정세 변동의 파장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또한, 기존 대북 교류가 물질적 및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이른바 “물고기 잡는 지식 기술” 공유에 도달하지 못한 점도 반성하게 된다. 즉, 자금과 시간을 들인 남북 교류 협력은 합의 상 보장되어 실행했지만, 상호 발전을 위한 지적 공유와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송두울, 1998; 박영균, 2010). 이러한 성찰과 교훈으로 통일학 교류세대 에이전트²⁾인 필자는 21세기 문맥에 적합한 소통스킬을 갖춘 소통세대 디자인이라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 도전적 아젠다는 남한의 경제성장 및 저출산·고령화 등과 관련된 다문화 담론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남한내 세대 간 소통 결핍도 내재되어 있다.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통일의 기회를 주도해야 하는 OECD 회원국인 남한의 기간적 소프트 역량으로 될 통일학 관점에서 이 아젠다를 보면, “OECD 미래 교육과 스킬 2030 프로젝트”(이하, OECD 2030)야말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것이다. 즉,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위해, 각자가 학습나침반을 가지고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적·창조적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남북한 사회 통합,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Alan, 2012; OCED, 2019; Arimoto, 2021). 이는 또한 문제해결 및 문화적 민첩성 역량을 필요로 하는 21세기 글로벌 미래 교육 및 스킬의 다급한 요구이기도 하다(Aoun 2017; 마크 프렌스키, 2016; 대니얼 서스킨드, 2020; Taylor Pearson, 2015, OECD, 2019). 특히, OECD 2030 맥락으로 보면, 사람과 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목표 성취를 지향한 목적 설정 및 그 실천을 하는 학생 에이전시(student agency)역량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OECD, 2019, 32-34). 이에 필자는 미래의 통일학 새 세대를 가칭 “소통세대”로 상정하여, 공유공간을 준비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통일학 소통세대란(이하, 소통세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통일학 연구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세대이다. 또한, 미래의 남북 사회통합, 나아가 통일을 견인하는데 있어서 민족의 주도성을 강화할 세대이기도 하다. 즉, 이 세대는 남북 소통 교류공간에서 에이전트(agent)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학생 및 협력적 에이전시(co-agency)역량을 보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러나, 소통세대가 되어야 할 대부분의 통일학 새 세대는 분단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 남북 교류 단절로 인해 그 경험조차 부재하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남북 교류 단절 및 소통스킬 부족으로 인한 정책적 손실 교훈에 비추어, 소통세대에게 교류세대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 제1보는 통

2) 에이전트(agent)는 에이전시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구체적인 실체를 의미한다.

일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 즉 소통스킬을 지니고 공유공간의 준비 및 운영 가능한 소통세대의 협력적 에이전트가 되어야 한다. 즉, 교류세대가 연구 및 경제적 방문 접촉 수준의 매우 협소한 사회적 역할을 했던 것에 비하여, 소통세대는 한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적 미래 소통스킬을 질적으로 강화하여, 남북의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에이전시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세대가 우선적으로 변혁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y)³⁾을 갖추고, 학생 에이전시로서 소통스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거시적인 차원에 비하여 교류세대인 필자의 미시적 차원의 소통 관련 경험 사례도 본 연구에 적지 않은 동기가 되었다. 우선, 남한에서 만난 북출신 전문가와 소통하며 겪은 곤란이다. 2010년대 오바마 시절 미국의 외교정책 전환점이 되었던 피벗아시아(Pivot to Asia)의 영향으로 북한 붕괴 관련 연구 성행했다(이상근, 2008; 김근식, 2009; 주용식, 2009; 윤황, 2009; 박휘락, 2010; 이효원, 2010; 이종철, 2010). 필자 또한 통일관련 전문가와 다학제적으로 유사한 연구에 참여하여, 북출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연구진에게 “그런 식(북한 붕괴)으로 중국 공산당이 언제 변한다고(당신들은) 생각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연구진은 그 질문에 대한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무응답으로 반응했다. 즉, 연관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Grice, 1971; Sperber & Wilson, 1986). 사실 열기 띤 그 당시 북한붕괴론은 10여년 이상 지난 현재, 남북 비대칭 전력 상황 및 이에 대한 안보의 의견 대립으로 그 학술적 진위는 현실적으로 판명되었다.

그 후, 필자가 북한 비자를 받고 중국에 체류하는 북주민에게 “문화적 스트레스” 강의를 하며, 남북간 문화적 장벽에 직면한 사례이다(유시은, 2022).

남출신 강의자의 “문화”라는 표현에 북주민들은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습”, “사회주의 생활문화” 등 사회정치적 의미로 인식하여, 그 “소규모 공유공간”에서의 소통은 불가능했다. 이 경험을 통해 교류세대로서 남북 주민간 소통 준비 실상이 어떠한지, 특히, 다문화·다민족·다어종 환경에 대비한 OECD 2030 핵심 역량 준비가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상기 두 사례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쌍방, 특히 남북 통합을 위한 소통 에이전트인 남출신의 ‘타인의 관점 수용능력’과 같은 인지적 스킬 및 사회정서적 스킬인 ‘공감능력’ 부족 등에 의한 불통이라 볼 수 있다(OECD, 2019)

또 다른 소통 곤란 경험은, 국내 탈북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학부모간담회에서 겪은 사례이다.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자식을 맡기는 것이지, 자식을 잘 키울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다른 학부모도 제각각 남한사회 정착과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며, 동의를 표했다. 이런 광경은 평소 그 기관과 학부모 사이에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대화가 부족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즉,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적 에이전트로서 자녀 발달과 연관된 소통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다(OECD, 2019, 16).

마지막으로, 한글로 된 북한원전을 소재로 남한 통일학 관련 대학원생의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겪은 소통과 그 공유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례이다. 필자는 북출신 전문가와 함께 역사적 및 수강자의 발달 지원 차원에서 북한원전에 관한 협력강의를 3학기 동안 진행했다. 우리는 “남북한 지식생산 비교”를 비롯하여 참여자 각자의 관점을 성찰하고 문화적 민첩성, 데이터 리터러시 및 문제해결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공유했다(Arimoto,

3) 변혁역량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OECD, 2019, 62-64).

2021; Grice, 1986; 김태옥, 이현호 1995; 국지연, 이성범, 2007). 그 다음, 자기의 관심 주제를 정하고 북한원전을 선택, 14주 동안 토론을 통해 분석독서 및 신토피컬독서를 했다. 최종적으로 16주차에 완성된 논문을 교내 및 정부 지원을 받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박영혜 2019a, 2019b; 서혜숙 2019a, 2019b; 유시은 2019a, 2019b; 한준희 2019). 이 성과는 졸업학위 취득으로 연결되었다(한준희 2020; 박영혜 2021; 전미라 2021). 더 나아가 석사생들이 주도하고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북한보건의학원전 분석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졌다(김경진 외 2023). 일련의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은 졸업후 대북 교류시 준비과정 디자인으로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 적합한 북측 전문가와 먼저 서면으로 소통하고, 예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추후 대면 만남을 기대하며, 공유공간의 필요성과 소통스킬 강화에 대한 수요를 실감했다.

상기는 교류세대의 개인적 반성과 대학원생의 변형역량을 통한 소통스킬 제고 및 공유공간 준비는 남북 간 긴장과 딜레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OECD, 2019, 62-64). 달리 말해, 교류세대가 소통스킬 및 협력적 에이전시 준비 없이 남북 간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자만은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통일의 걸림돌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자기 변형을 통한 대학원생들의 역량 강화 모습은 소통세대 디자인의 가능성과 함께 체계적인 지지와 세대 간 연관성(relevance)의 필요를 보여준 것이다.

상기의 교류세대로서의 소통 곤란 및 그 극복 사례는 남북 간 소통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 즉 공유공간 및 도구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 국어교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 준비 및 운영역량의 디자인으로 미래 통일학 세대의 소통스킬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글로벌 규모의 OECD 2030 학습프레임을 지역적 환경인 한반도 실정에 적합하게 원리

적용하여, 남북 초등교사의 국어교과 교류 준비를 위한 공유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다음,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어로서 소통조력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 간 교육 통합뿐만 아니라 남한 내 다문화 및 세대 간 소통스킬을 제고하는 관점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지향에 적합한 소통스킬을 갖춘 통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교류공간이 부재한 소통 관련 선행연구

그 동안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소통 관련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선, 남북 소통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를 살펴보면, 고진(1998: 14-15)은 “가르치고-배우는 비대칭 관계”로 소통을 규정했다. 이를 차용하여 박영균(2013: 227-228)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인문적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팔호 안에 묶고 ‘남’이 가진 의미를 ‘북’에 가르치고, ‘북’이 가진 의미를 ‘남’에 가르침으로써 ‘남’과 ‘북’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들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상호 소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박영균(2013, 229)은 송두율(1998, 69)의 민족통일에 대한 규정, 즉 지역적 사건이 아닌 지구적 사건을 일구는 미래지향적인 창조 행위로 연장하여, 해외 코리언을 포함한 남북 간 차이를 소통을 통해 새롭게 생성하는 민족 공통성 창출이라고 하였다. 김희정과 김선(2018, 249)은 통일이나 소통을 논하는 자리에서 남북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는 인지적 해결방법을 중시했다.

상기 연구는 한민족이 한글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공통성과 분단으로 인한 차이점을 우선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모색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으로 상징되는 21세기에 사는 남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준한 문제 발견과 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남북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글로벌 수준의 목표 상태를 공유하지 않고 지역 범위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방향도 결실도 없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남북 소통을 위한 언어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교류세대 시기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북한 컴퓨터용어 단일화(홍윤표, 진용욱 1996), 남북전문용어(최기선 2001, 2002, 2003; 김광수, 2004; 김선철, 2008; 신중진 등, 2016; 권재일, 2019; 최용기, 2010), 남북 언어학 용어 표준화 기초연구(권재일 2006), 남북 체육 용어 단일화 연구(최기호 2008) 등이 있다. 또한 조명철(2008)은 남북 무역용어 비교연구를 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것을 남북학술용어 비교사전 편찬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한 남북교과서 학술용어 비교연구를 비롯하여,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문오, 전수태 2007; 김문오, 2007; 신중진 등, 2015, 2016). 전연선(2015)은 통일 과정과 통일이후 사회통합에서 삶의 문제, 일상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피력하며, 남북 소통을 위한 언어의 중요성과 북한의 언어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 권재일(2019)은 분단 이후 남북한 언어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 통일 한국을 위해 그 차이를 해소하여 갈등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언어학적 전문연구로서, 현재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고 교류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지역적 차이는 존중하되 문화적 민첩성을 발휘한 소통스킬 접근으로 볼 때 동화적 발상이라 보여질 수 있다(OECD 2016). 더구나, 개방적인 남한의 경제적 우위에서 활용되는 언어를 폐쇄적이며 경제적으로 하위에 놓

인 북한에게 권고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즉, 이른바 “사상문화적 침투”라는 대결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남북간 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분야는 교육강령(강보선, 김진숙, 박수련, 2016; 권순희, 강보선, 주재우, 정진석, 2017; 김윤정과 권순희, 2018), 국어 교과서 연구(전수태, 1992; 강보선, 2013; 권순희, 2018), 남북 국어교육 비교연구(최현섭 등, 1999; 고정희 등, 2015; 진용성, 차해나, 2018; 권순희, 주재우, 김윤정, 변경기, 정경화, 2018) 등이 있다. 또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시행 후 개편된 국어 교과서에 대한 세부 연구(권순희, 강보선, 주재우, 정진석, 2018; 권순희, 2018; 김윤정, 권순희, 2018; 이향근, 2018) 등이 있다. 더 나아가 통일 후 남북한 초등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반 연구(전수태, 2010; 이인제 등, 2000; 최용기, 2007; 김진숙, 김창환, 2015; 진용성, 차해나, 2018; 진용성, 김병수, 2022)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의 소통 기반 구축을 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학교 아동의 일반적인 발달을 고려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남북의 사회제도적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OECD 2030의 도덕적 및 윤리적 기반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남북 주민의 선택적 소통 대상으로 설정하고 접근한 연구이다. 유진아(2019)는 남북출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특징 등을 분석했다. 일상에서의 경합적 관계가 아닌 합창 활동 공간에서 남북출신 청년들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김미현과 김재범(2015)의 연구는 우리에게 주민간 공유공간의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남북출신 대학생의 팀플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원인을 분석한 유시은 등(2018: 94-97)은 행위주체 각자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소통스킬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소통 관련 연구는 남북출신 주민 간 소통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법 마련을 위한 모색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학적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남북 지식 공유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근로간부에 관하여 특정할 수 없다. 더욱이 북출신 주민들이 한국 국적자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에, 통합과 교류의 실질적 대상인 북주민과의 소통이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소통 관련 연구의 한계는 첫째, 남북이라는 지역 범위에서만 논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남한 입장에서만 논의함으로써, 사상문화적 침투라는 대결 구도를 재생산할 수 있다. 셋째, 물질적 교류가 아닌 지적 교류를 위한 북한 근로간부와 소통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넷째, 소통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는 아동발달 단계의 인류 공통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William 2012; OECD, 2019, 19). 마지막으로, 남북이 공히 사용하는 한글교육, 즉 국어교과의 지향이 OECD 2030 학습프레임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공유공간과 관련된 설계가 공통적으로 부재하다. 남한은 OECD 회원국이기 직접적으로 그 학습프레임을 2015 및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했다. 북한 역시 OECD 2030 학습나침반 개발에 기여한 중국 및 러시아,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OECD, 2019, 135).

이에 미래 소통세대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남북 초등교사의 국어교과 교류 준비를 위한 공유공간과 공용어로서의 도구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유공간과 공용어의 개념은 OECD 2030에 준한 것이다.

2. OECD 교육 2030과 소통스킬

19세기 및 20세기 학교교육을 보면, 학생은 대체

로 교실에 앉아있는 수동적 파트너십이 부여되어 있었다(OECD 2019, 5). 그러나 21세기 광범위한 변화 국면에 처한 우리 세계는 변형 중이며, 디지털화, 기후 변동 및 인공지능이라는 글로벌 경향은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관한 질문과 관심사는 점점 더 절박성을 띠게 되었다. 마침내 2015년 OECD교육정책위원회는 교육이 직면한 복수의 장기적 도전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위원회는 증거 기반을 갖추고 보다 체계화 된 커리큘럼 디자인 및 개발 프로세스 작성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정치적 선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커리큘럼 변화의 핵심에 확실히 자리 매겨져야 한다는 점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 즉, 교사 중심의 지식 주입식교육에서 “학생중심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OECD, 2019, 8)

그 응답으로 2015년 OECD 교육정책위원회는 OECD 미래 교육과 스킬 2030 프로젝트(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roject)를 시작했다. 그 목적은 각 회원국의 미래 교육 준비를 조력하기 위한 것이다. 제1단계(2015~2018)는 “무엇”과 관련된 것으로서, ‘오늘날 학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성공(thrive)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가치 역량은 무엇일까?’ 제2단계(2019~현재)는 “어떻게”로서, ‘오늘날 학생이 지식, 스킬, 태도/가치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이다(OECD 2019, 9).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은, 이 프로젝트가 공식 교육, 비공식 교육, 및 평생 교육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중요하며, 그 모든 수준의 학습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원리(the applicability of project principles)라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프레임에는 하나된 이해 공유 구축을 위한 하나의 공용어를 조력하는 능력도 부여되어 있다. 즉, 구체적인 지역 규모에서 글로벌 규모까지 망라하는 하나의 공용어

조력으로서, 각 학습자는 그 누구라도 연령과 배경에 무관하게 한 사람의 전인간적 발달 능력, 즉 각자의 잠재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각 학습자는 개인 및 커뮤니티의 웰빙, 지구상의 웰빙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구체화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용어로 인해, 광범위한 교육 시스템들을 횡단적으로 비교 및 학습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다양한 이해관심자들이 학습프레임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고, 최선의 실천을 서로 배우며 비교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OECD 2030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수요되는 일종의 토론 축성제이다(OECD, 2019, 13-14). 이것은 “소통세대의 디자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프로젝트 원리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미래 통일학의 증거 기반이 될 것이다.

상기 OECD 2030의 목적에 따라, 2019년 1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OECD 학습나침반 2030(이하, 학습나침반)’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 한국도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2030에 부응하여, 2015 및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였다(김종운, 2019; 교육부, 2022).

학습나침반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미래 목표 과제는 ‘개인 및 집합적 웰빙’이다<그림 1>. 이 나침반은 우리에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나침반은 시공간적으로 ‘진화하는 학습프레임’이다. 그 속에는 다양한 이해관심자들로 재구성되는 보다 폭넓은 커뮤니티에 의한 시간적 순화 과정이 내장되어 있다. 나침반은 각 지역범위인 국가 지자체 환경에 이 프레임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글로벌 규모의 “공유공간” 개념도 들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공용어와 이해(a common language and understand)”를 개발할 수 있는 도움의 성격도 들어 있다(OECD 2019, 22). 본 연구에서는 OECD 2030의 공유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한 초등교사의 국어교과 교류공간 준비 및 운영역량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글로벌 범위에서 제시한 OECD 2030의 공유공간 개념은 지역 차원인 남북의 공유공간을 디자인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학습프레임으로 제시한 공용어 및 그 이해에 관한 개념은 아동 발달을 고려한 남북 한글교육인 국어교과를 교류하는데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빨간 가방을 멘 학생 에이전시는 자기 손에 미래지향 네비게이션인 학습나침반의 도움으로 오른쪽 상단 목표인 “웰빙 2030”을 향해 여행하려고 출발선에서 있다.



<그림 1> OECD 학습나침반 2030(OECD, 2019, 21)

학습나침반이라는 메타포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단순히 정해져 있는 안내나 방향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뚫고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학생 에이전시 개념은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이 나침반을 손에 들고 있는 학생은 목적의식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자기 삶과 그들의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습을 한다(OECD, 2019, 24). 이것은 하나의 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변화에 책임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성찰하는 역량이다(OECD, 2019, 31). 이러한 역량을 내적으로 갖추고 활동하는 주체를 학생 에이전트라 부를 수 있다.

학생 에이전시의 왼쪽에 협력 에이전시가 있다. 협력 에이전시는 학부모, 동료, 교사 및 광범위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함의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협력 에이전시 역량을 갖춘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은 학생 에이전시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에 놓여있다. 학생 에이전시를 둘러싼 다양한 협력 에이전시는 학생의 발달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 관계인 것이다(Salmela-Aro, 2009; OECD 2019, 32, 37).

남북 초등교사가 국어교과 교류시 소통세대도 소통스킬을 갖추고 공유공간을 준비하는 협력에이전트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류세대가 학생 에이전시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핵심스킬을 갖추어야 한다.

학습나침반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 된 역량이 시스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중심 구조에 자리한 핵심 기반(core foundation)은 지식, 스킬, 태도/가치이다(OECD 2019, 15, 48). 그 주변 구조에 자리한 변형역량, 새로운 가치 창조능력, 긴장 및 딜레마 중재능력, 책임성 갖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 바깥 둘레에는 하나의 AAR 사이클 구조를 갖춘 예측-실행-성찰이 놓여있다. 유의할 점은, 가치를 제외한 중심구조의 핵심 기반과 AAR 사이클은 전통적으로 계승된 것이다. 즉, 구조적 과거 계승성과 바람직한 웰빙의 미래성은 현재의 학생을 안내할 학습나침반에 반영되어 있다. 달리 말해, 나침반은 전통적 역량에 더하여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도전하기 위한 변형역량 보충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9, 24).

핵심 기반역량을 중심으로 보면, OECD 2030은 3중 구조로 된 하나의 시스템, 즉 나침반이라는 메타포로서 학습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레임의

핵심 기반역량으로 인지적 기반, 건강 기반, 사회정서적 기반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 기반역량들의 분화통합으로서 소통스킬이 배양될 수 있다. 또한 이 기반역량들은 학생 에이전시와 변형역량을 개발하는 데 기초석이 된다. 우선, 인지적 기반에는 전통적인 리터러시(literacy, 문식성)와 수리력(numeracy)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가 더해졌다. 여기서 리터러시는 복합적이며, 문화와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Ntiri, 2009).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능력”을 근본적으로 의미한다. 특히, 리터러시는 말하기 및 쓰기의 언어체계를 통하여 인간의 소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통세대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리터러시의 기본인 한글교육, 즉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공유공간 및 공용어로서의 도구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둘째, 건강 기반은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웰빙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반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9, 45-52).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과 교류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건강 기반은 도구 디자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적 기반역량은 자제능력, 협력, 개방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덕적/윤리적 기반역량과도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관련된다’는 의미는 각기 다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인 개인이 그 사회의 도덕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하고, 그 결정에 부합된 행동을 하다는 것이다(Kohlberg, 1984). 이러한 사회정서적 기반역량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은 협업을 위해 소통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며, 자신과 타인의 건강 및 사회정서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책임질 수 있다(OECD, 2019, 82) 한편, OECD 2030은 의사결정, 자제능력, 자신과 사회집단의 행위과정에서 도덕적/윤리적 기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기준이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문화, 역사, 장소, 사회에 따라 도덕적/윤리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 간 소통에 있어서도 분단의 장기화 및 이념적 차이로 인해 사회제도적 및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남북 소학교 교사의 국어교과 교류공간에 있어서 도덕적/윤리적 기준 차이를 인정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적 기반과 사회정서적 기반역량의 상세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적 기반에는 크게 기초적 조건 및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적 조건은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역량인 리터러시와 수리력에 더하여 테이터/디지털 리터러시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소학교 아동의 발달 및 국어교과 내용을 고려하여, 기초적 조건인 리터러시를 도구 디자인에 포함하였다. OECD 2030에서 정의한 지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 개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이해뿐만 아니라 이론적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지식의 네 유형은 교과적 또는 교과중심(disciplinary or subject-specific), 교과간(inter disciplinary), 인식론적(epistemic), 절차적(procedural)⁴⁾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OECD, 2019, 71-72).

OECD 2030에서 스킬은 인지적/메타적 인지, 사회정서적, 실천적/신체적 스킬로 유형화되어 있다. 특히, 교실과 일터가 점점 더 다인종·다문화·다언어화 되어 가는 오늘날, 사회정서적 기반역량에 포함된 공감, 자각능력, 타인 존중, 협력은 반드시 발휘되어야 할 스킬이다. 이 스킬로 학생은 자기 오너십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목표 성취에 필요한 프로

세스를 진행하고, 자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스킬은 복잡하고 불가피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식, 스킬, 태도/가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다(OECD, 2019, 83).

마지막으로 태도/가치는 원리와 믿음, 신뢰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단, 이 역량에 속하는 도덕적/윤리적 기반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그 사회의 문화 역사 및 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태도/가치로 인해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도움은 모두가 바라는 웰빙 및 미래 지향 내비게이션이다. 이 지향성은 개별적, 사회적 및 환경적 웰빙을 지향하는 경로에서 각자의 선택, 판단, 행동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원리 및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가마다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으로 상이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를 건설하고자,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 및 공동체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다. 또한 국가는 교육을 통해 시민성과 관련된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을 강조하며, 상이한 사회제도로 인한 태도/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OECD 2019, 99).

한편, 상기의 지식, 스킬, 태도/가치는 경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하는 개념이다. 즉, 미래 사회는 학교, 직장 및 공동체가 보다 더 복잡해짐에 따라 제반 역량들의 분화통합은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심에 자리한 소통스킬은 지식, 스킬, 태도/가치 역량에 공통적으로 자리한다. 즉, 핵심 기반역량인, 인지적 기반과 건강

4) ① 교과적 또는 교과중심 지식 유형: 이해를 위한 핵심 기반이며, 교과 지식의 구조를 통하여 학생들이 다른 형태의 지식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교과적 지식을 획득하는 기회는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교과간 지식 유형: 주요 개념을 다른 맥락에 전이하고 연결성을 확인하고, 주제학습을 통하여 교과목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과목 신설을 통해 프로젝트기반학습(PBL)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통합되는 것이다.
 ③ 인식론적 지식 유형: 참여자가 사고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서 학생은 자기 학습에서 잠재된 연관성과 목적을 보게 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④ 절차적 지식 유형: 주어진 과제 수행 방법 및 구조적 상태변화 처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데 유용하다.

기반, 사회정서적 기반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OECD, 2019, 48-52). 그러나 남북 초등 교사의 국어교과 교류공간 준비를 위한 공용어로서 소통스킬 도구는 인지적 기반과 사회정서적 기반으로 제한하였다.

3. 적합성 원리: 소통세대의 준비, “공유공간”과 “공용어”

본 논문은 남북 사회통합의 “통일학적 결정변수”로서 남북간 공교육 국어교과를 교류할 수 있는 지역적 규모의 “공유공간” 개념을 상정하였다. 소통세대는 공유공간을 준비하여 남북 교사 간 적합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협력 에이전트로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적합”이란 연관성 원리(Principle of Relevancy)에 근거한 개념이다.

연관성 원리는 적합성 원리라고도 번역된다. 보통 ‘적합성을 띤 의사소통의 원리’로 불리는 경우, 언어학 특히 화용론(pragmatics)적 접근에서 볼 수 있다. 즉, 대화 속에서 소통적인 발화(utterance)는 그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연관성 내지 적합성을 추정한다는 화용 원리이다. 달리 말해, 발화 혹은 수화(受話)의 의미 처리에 있어서 기초적인 해석 이상인 추론(reasoning)의 개재(mediation)에 의하여 가장 적합한 의미를 결정한다는 원리이다(김태옥, 이현호, 1995; 강미경, 2000, 국지연, 이성범, 2007).

van Dijk(1971)은 담화 또는 텍스트의 문법, 즉 발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규칙이 존재한다고 상정했다. 그러나 이 견해는 Grice(1975, 1986)가 옹호하는 담화에 대한 견해와 상충된다. 즉, 통화상에서 화자는 인지적인 일반 원리 즉 협동의 원리와 대화의 격률(Gricean maxims, 格率)을 충족하고자 하며, 청자는 두 원리를 마인드(mind)안에 지닌 채 화자의 발화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처리할 때 사람은 최소의 노력으로 자신의 전반적인 세계 표상체(my

world)를 최대한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소통에 있어서 노력과 효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은 어느 정도의 정신적(mental) 노력을 들여서 얼마간의 인지효과를 달성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얼마간”의 효과란, 개인이 겪은 신념의 변화, 즉 새로운 신념의 부과, 기존 신념의 삭제, 또는 단순히 기존 신념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변화를 통해 달성된다. 이러한 Grice의 대화 격률, 즉 ‘연관성을 띠다(to be relevant)’라는 내용을 발전시켜, Sperber와 Wilson(1986)은 인간의 정보처리능력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맥락 효과의 관점을 규정하였다. 한편, 연관성 원리는 정보과학 혹은 정보검색에 있어서, 검색결과로 나올 문서 혹은 문서군이 사용자가 필요로 했던 것과 얼마나 합치하는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Bredford, 1934).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 연관성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과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즉, 인간의 심리에는 어떤 종류의 인식론적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관성 이론은 정보과학, 인지과학, 언어학 등에서 횡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만큼, 그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공통성은, 궁극적으로 “인간 소통”을 설명하는 비교적 완성된 모델이라는 점이다(Grice, 1975, 1986; 김태옥, 이현호, 1995). 즉, 인간이 소통하는 필드에 있어서, 화자가 기호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의미를 청자가 얼마나 연관성 있게 혹은 적합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는 이 원리에 착목하여, 남북 교사의 국어교과 교류의 연관성 제고를 담보하고자 협력 에이전트로 참여할 소통세대가 “공유공간”을 준비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소통세대는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될 남북 초등 교사의 국어교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을 준비할 세대이다. 즉, 이

공유공간은 OECD 2030의 글로벌 규모에 기반한 것으로, 남북 교사들이 한글교육, 즉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적합한 소통을 주고받을 지역 규모의 개념이다(OECD, 2019, 9, 14, 103, 127). 한글을 공용어로 사용하는 남북 초등 국어교사의 공유공간은 지역적 공간으로서, 그 준비는 협력 에이전트로 참여하게 될 소통세대 앞에 맡겨진 과제이다. 이 공유공간에서 남북 국어교사는 OECD 2030 관련 세미나, 공동번역 또는 통합 교재 개발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소통세대의 역할은 남북 국어교사 간 적합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협력 에이전트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소통세대는 OECD 2030에 근거한 공유공간 준비 및 핵심 기반 역량으로 자기 변형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 사회통합에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후대 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통합적인 한글 교육이 기반으로 되어야 한다. 그 제일보로서, 12년제 공교육 설계의 근간인 아동 발달과 한반도의 공용어인 한글을 교육하는 국어교과를 공유공간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협력 에이전트인 소통세대에게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에 대한 교류공간 준비라는 상호 적합한 중재 과제가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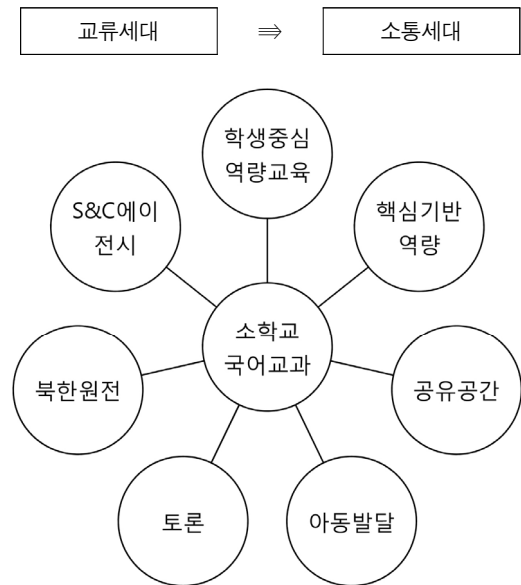
III. 통일학 소통세대 디자인

1. 소통세대 디자인 요소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공교육 국어교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의 준비 역량 디자인으로 소통세대의 소통스킬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그 공간의 운영 역량 디자인으로 OECD 2030 핵심 기반 역량에 기반한 소통조력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디자인(design)”이란, 교류세대가 학생

에이전시로 변형되어, 소통세대라는 목표상태에 도달하는 성취 과정을 의미한다. 즉, 디자인은 가용한 요소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구상에 따라, 그 최종 목표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며, 이로써 얻어진 실체이다(Barker, 2012, Arimoto, 2019). 본 연구에서는 환경인 “공유공간”과 OECD 2030 기반역량에 근거한 도구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 디자인의 상태 변화 과정과 그 요소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소통세대 디자인 요소

변형역량을 갖춘 교류세대가 소통세대로 상태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학생 및 협력에이전시, 학생중심 역량교육, 핵심기반역량, 공유공간, 아동 발달, 토론, 북한원전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북한원전인 소학교 국어교과 기사는 김정은 정권 시기 2012~2019년 사이에 발행된 [인민교육]에서 발췌하였다. 이 시기에 게재된 소학교 관련 기사 내용은 1학년 국어교수안(김화옥 등, 2013)의 교육 범위에 근거하여 구분하였다<표 1>. 그 중 소학교 1학년이라고 명시된 말하기 및 듣기교육에 해당된 1

편을 선택하여,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도구에 적용해 보았다. 그리고 [인민교육]에 게재된 기사에 해당하는 국어교과서 교수안을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에 적용하였다. 소학교 1학년에 주목한 이유는 발달단계상 전환기이며, 소통스킬 중 말하기와 듣기교육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분석시 12년제 최고인민회의법령, 소학교 1학년 교수안 및 교과서(1학년~5학년)과 교육신문, 노동신문, 교원선전수첩에 게재된 교육강령 및 소학교 국어교과 기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표 1> [인민교육]에 게재된 소학교 국어과목 현황

관련 기사	176편	
소학교 국어 기사*	읽기교육	14편 (34%)
	쓰기교육	11편 (27%)
	말하기교육	10편 (24%)
	글자교육	6편 (15%)
	듣기교육	5편 (12%)
	기초원리지식	1편 (2%)
	학년 명시	8편 (20%)
	1학년 명시	3편 (7%)
	소계	41편 (23.3%)

* 구분 시 두 개 이상의 교육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중복 체크함.

[인민교육] 기사 중 소학교 국어과목을 주요 자료로 채택한 이유는, 우선 소학교 국어교수 현장에 대한 역동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교육에서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과과정의 시작이 소학교 1학년 국어과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학교 1학년 국어교수의 목표로 말하기 및 듣기교육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모어의 영향을 받은 아동이 첫 공교육의 시작인 소학교에서 입말을 글말로 학습하는 인지발달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소통세대 디자인을 하는데 착목하였다. 특히, 국어교과는 남북한 한글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세대 디자인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였다. 셋째, 발달 단계 상 전조작기에서 조작기로 이행하는 시기가 소학교 1학년 과정이며(Piaget, 1964, 22; Ginsburg & Opper, 1988, 70), 이는 곧 발달상에 있어서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시기적으로 기술의 급속한 진보 및 글로벌 환경 등의 변화로 새로운 교육 혁신을 지향한다는 남북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지식경제시대 교육 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시작했다(인민교육, 2012, 06, 4-6). 북한의 교육 변화는 문화교류 주요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OECD 2030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한 러시아 및 중국, 베트남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OECD, 2019, 133-138). 이 선상에서 남북의 지역적 규모의 공유공간을 준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교류하는 것은 사회통합 및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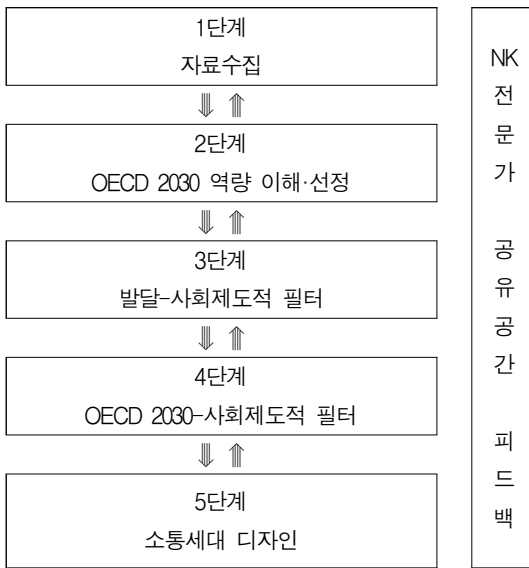
2. 소통세대 디자인 과정

소통세대 디자인 과정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과정 설정은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상호 중첩되어 있어 피드백을 거쳐 재순환하였다. 남출신 연구자는 서론의 미시적 사례에서 언급한 실험적 경험을 함께 한 북출신 전문가와 피드백하며 전 과정을 진행했다. 즉, 이 연구는 남북 미니 공유공간에서 적합성을 피드백하며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출신 전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는 일본 출생으로 다문화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문학적 및 언어학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이런 가정환경으로 인해, 문화인류학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북사회를 그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북한에서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개발·번역출판·SF창작·무역에 종사하였으며, 일명 (근로간부5)

라고 자칭한다. 2000년대 초반 무역 관계로 중국에 나왔다가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 국적을 회복했다. 그 후 중국 지역에서 비자방문 북주민의 자생적 조합에 참여, 경제교육 등 Kcube 하모니 플랫폼에서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북한학과 학부 및 통일관련 대학원에서 북한원전 리터러시 관련 강의에 참여, 다수의 정책자문 등을 하였다.

<표 2> 소통세대 디자인 과정



1단계. 자료 수집 : 북한 소학교 국어와 관련된 원전을 검색하고 해당 자료를 2021년 9월~2023년 9월까지 3년에 걸쳐 자료 수집 및 전산화했다. 수집한 자료는 [인민교육](2012년 1호~2019년 6호), 소학교 국어(1학년~5학년), 소학교 국어교수안(1학년), 노동신문 및 교육신문(키워드 검색; 새의무교육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2012년~2019년)이며, 목차를 전부 전사했다. 연구자와 북출신 전문가는 목차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중 소학교 국어교수현장의 성과 및 이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 등을 선

별했다. 선택된 소학교 국어교과 자료는 엑셀에 입력하였으며, 각각의 기사는 워드로 전산화하였다.

2단계. OECD 2030 역량 이해·선정 : 연구자와 북출신 전문가는 소학교 아동의 인지발달에 근거하여, OECD 2030에 포함된 역량(OECD, 2019; 이미경 등 2018, 17-22)을 함께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소학교 학생의 발달단계에 수요되는 역량을 선정하였다.

3단계. 발달-사회제도적 필터 : 이 단계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근거하면서도 북한의 사회제도적인 측면을 분별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구자와 북출신 전문가는 아동 발달에 대한 공유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아동 발달은 시대 및 인류를 초월한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OECD 2030의 도덕윤리적 기반에 대한 지자체 국가의 상이성을 존중한다는 기초에도 적합하다. 즉, 지역적 규모에서 글로벌 규모에 이르기 까지 공유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공용어, 더 나아가 나이 또는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이러한 접근은 기반이 되어야 한다(OECD, 2019, 9-12). 또한, 4단계에서 언급한 “사회제도적” 필터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국어교과에 대해 토론하는 교류공간에서 아동 발달에 주목하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며, 남북한 다문화적인 사회제도적인 측면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4단계.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 : 이 단계는 3단계의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OECD 2030의 심화 학습을 위한 전제 조건인 지식, 스킬, 태도/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OECD, 2019, 16). 이 핵심 기반역량에 적합하게 대분류, 소분류, 세분화하여 전개 및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북출신 전문가는 공동으로 OECD 2030 원문을 공동번역하며 숙지하

5) 북한 간부의 유형은 크게 근로간부와 지도간부로 구분할 수 있다. 대졸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간부는 주로 교원, 설계원, 의사, 기사, 연구사, 기자 등이 있다.

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 기사 3편을 분석독서 후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를 상정하였다. 소통 주체로서 미래 통일세대는 이 필터를 적용하여 공유공간의 협력 에이전트로서 소통의 껍, 그 시스템의 “불통상태”를 “소통상태”로 적합하게 변화시키는 솔루션을 중재할 수 있다.

5단계. 미래 소통세대 디자인 : 미래 소통세대가 남북 국어교육 교류를 위한 “하나의 공용어”, “공유공간”을 준비할 수 있는 적합한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소통세대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인 적합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후속 연구는 본 필터를 적용하여 인민학교 국어교과에 대한 내용분석, 더 나아가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 국어교수에 대한 OECD 2030 필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3. 환경 디자인 ; “공유공간”의 적합성

소통세대가 준비할 남북 소학교 교사의 국어교과 “공유공간”에 대한 적합성 모델은 이하와 같다. 염두할 것은, 이 디자인에 있어서 교류세대와 소통세대의 최대 차이를 “OECD 2030” 변인으로 설정하였다(OECD, 2019, 23-24). 즉, 현재를 사는 각 세대는 시대적, 인구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 변화에 따른 소통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축소 환원에 적극적이라면, 통일의 선행역량인 언어 소통, 즉 한글의 경우, OECD 2030 역량 강화로서 “공유공간” 및 “공용어”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디자인에 대한 적합성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교류세대 } \delta \neq 0, \text{ 소통세대 } \delta \rightarrow 0 \dots\dots \text{ <식 1>}$$

“교류세대 $\delta \neq 0$ ”은 교류세대의 소통스킬 부재로

남북 간 불통 상태를 의미한다. “소통세대 $\delta \rightarrow 0$ ”은 학생 에이전트로서 교류세대가 소통스킬 강화를 통해 소통세대로 상태 변화되어, 남북의 소통 차이가 “0”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δ 는 OECD 2030 소통스킬에 기준한 소통세대의 수준 격차를 설명하는 편의상 기호이다.

소통에서 언어 관련 지식과 스킬의 무게로 보아, 남한 공교육을 받은 소통세대의 OECD 2030 소통스킬 수준 차를 Δs 로 표기할 수 있다. 한편 본 디자인으로써 소통스킬 갖춘 소통세대의 OECD 2030 수준 차를 Δsn 으로 각각 표기하면, <식 2>와 같은 표현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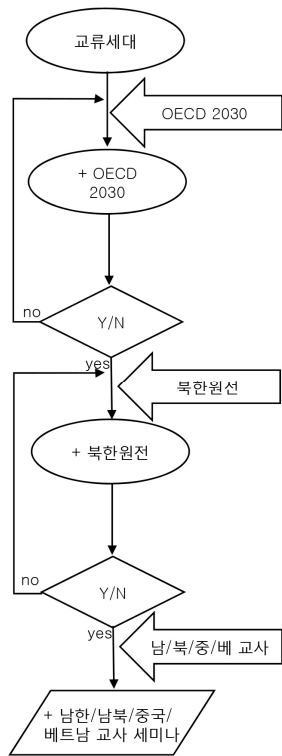
$$|\Delta s - \Delta sn| = \delta \dots\dots\dots \text{ <식 2>}$$

OECD 2030에 기반한 개정교육과정을 거친 세대는 물론이지만, 그 이전의 교류세대라도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 관련 원전에 대한 이해 및 토론을 거쳐 학생 에이전트로서 변형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OECD 2030에 본질적으로 추가된 변형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이다(OECD, 2019, 59).

결론적으로, 소통세대가 준비해야 할 교류 환경 디자인인 “공유공간”은 총적으로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elta \rightarrow 0 \dots\dots\dots \text{ <식 3>}$$

소통세대가 준비한 공유공간에서 북한원전 소학교 국어교과를 소재로, $\delta \rightarrow 0$ 으로 상태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6→0 상태 변화 과정

<그림 3>에서 주목할 점은, 소학교 국어교과와 관련된 공유공간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교사까지 망라할 수 있다. 즉, 중국은 한글을 사용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사회주의권 국가로서 친한국적이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또한 중국 및 베트남은 OECD 2030에 기여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교사간 교류는 가능하다.

4. 도구 디자인 ;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

도구 디자인은 이론적 배경 및 아동 발달, 연구 모델을 근거로 개발했다. 도구는 각각 발달-사회제도적 필터,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이다. 전자의 개발 의도는 “디자인 과정”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후자는 총 16개 항목으로 상정하였다. 이 항목

은 국어교과에 적합한 소통스킬에 제한되어 있다. 즉, OECD 2030 핵심 기반역량에서, 인지적 기반인 지식에서 3개, 사회정서적 기반인 스킬, 태도/가치에서 10개, 도덕적/윤리적 기반 1개, 주도성 2개로 필터 변수를 구성하였다<표 3>.

본 연구자는 이 필터 개발을 위해 우선 OECD 2030 개념을 학습하고,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공유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도구를 디자인하였다(William 2012; OECD, 2019, Grice, 1975, 1986; 김태옥, 이현옥, 1995). 즉, 적합성 원리 및 OECD 2030 원리에 근거하여, 소통세대가 준비해야 할 개념적 시스템인 남북 교사의 공유공간은 소학교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및 자아 발달과 관련된 공용어로 활용 가능한 도구를 디자인하였다.

<표 3>과 같이, 핵심 기반역량은 인지적 기반, 사회정서적 기반, 도덕적/윤리적 기반, 주도성으로 대분류하였다. 이를 각각 소분류하여, 지식, 스킬, 태도/가치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 기반 역량과 북한 소학교 해당 기사를 반복하여 읽으며, 각각 세분화하였다. 주도성의 경우, OECD 2030이 학생 에이전시와 협력 에이전시를 강조하는 만큼, 북한의 국어교수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이를 적용하였다. 이는 향후 북한의 에이전시 변화 양상을 보는데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남북 소통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측면을 우선 소거하기 위해 도덕윤리적 기반은 NK로 표시하였다<표 3>.

<표 3>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

인지적 기반	지식	과목별	a.말하기/듣기
			b.읽기/쓰기
		과목간	a+b
사회정서적 기반	스킬	인지/메타인지	c. 책임성/자율성
			d. 창의성
			e. 관찰
			f. 대담
		사회정서적	g. 발표

	h. 토론
신체실천적	i. 인내
	j. 제스처
태도/가치	k. 원리/믿음
	l. 신뢰
도덕윤리적 기반	NK
에이전시	s. 학생
	co. 협력

상기 분류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자와 북출신 전문가는 소학교 기사 1편을 <표 3>에 준하여 부호화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일치된 필터 셀 수/전체 필터 셀 수)×100]의 공식에 의해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했다(김석우, 최태진, 박상욱, 2016, 338; 강은영, 권민효, 유현욱, 방윤수, 2022, 28-29). 1차 신뢰도 분석은 해당 기사를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후 산출된 신뢰도는 81.6%였다. 분석 결과가 불일치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여 해석 차이에 대해 개념을 정립한 후 다른 소학교 1학년 기사를 선택하여 2차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96.2%가 나왔다.

IV. 소통세대 디자인 적용

1. 발달-사회제도적 필터 적용 : 도덕윤리적 기반 역량에 의한 남북 국어교과

북한 소학교 국어과목을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에 적용하기 전에, 남북 초등 국어교과를 발달 및 OECD 2030의 도덕윤리적 기반역량 시선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남북 초등 국어교과의 성격을 <표 4>에 대조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소통세대로서 남북의 사

회제도적인 특징이 국어교과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큰 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남북 초등 국어교과의 각 성격을 보면, 남한의 경우 (1)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다(국어 능력자), (2) 가치있는 국어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다(국어 활동자), (3)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국어문화를 향유하다(국어향유자)로 정리할 수 있다(교육부, 2022, 99). 북한의 경우, (1-1)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을 갖추다, (1-2)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주다, (2-1) 사상교양 실현하다, (2-2) 정서교양을 실현하다, (3) 사고력을 키워주다로 정리할 수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3, 3)⁶⁾.

<표 4> 남북 소학교 국어교과에 대한 정의

남한		북한	
내용	제한조건	내용	제한조건
①국어 사용능력	정확성과 효율성	‘국어’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바탕으로 국어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교과이다.	국어과목은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주고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실현할 뿐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과목이다.
②국어 활동	바람직한 인성/공동체 의식 함양에 가치 지향	②교양 실현	사상, 정서
③국어문화 향유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활동을 바탕으로	③사고력 육성	

6) 국어학습의 필요성을 언급한 남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의 성격”은 “북한 소학교 <국어>과목교육의 일반적 원칙”과 대조하였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과 ③은 각각 ‘국어/언어’ 및 ‘사고’라는 인지발달적인 측면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②는 남북 각각의 사회제도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즉, 남한은 “바람직한”으로, 북한은 ‘사상교양’으로 대표되는 사회제도적인 면이다. ③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고”라는 측면에서 인지발달적인 면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창의적”, “비판적”이라는 표현을 보면, OECD 2030 역량인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와 새로운 가치 창조(creating new value),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남북한 초등/소학교 국어과목 교수의 목적

남한	북한
<p>학습자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시각 언어 등 다양한 양식의 기호와 매체가 활용되는 국어를 통하여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세계를 이해한다. 또한 다양한 국어 활동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를 향유하면서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른다(교육부, 2022, 99).</p>	<p>우리 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다정다감한 정서를 키워주며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초보적인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줌으로써 초급중학교 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김화옥 등, 2013, 3)</p>

남북 초등 국어과목 교수 목적을 보면, 발달적 및 사회제도적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표 5>. 우선, 발달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첫째, 남북 모두 ‘말과 글’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남한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시각 언어 등 ... 활용되는 국어’라는 표현에서 미디어 및 사회발전으로 인한 멀티 리터러시를 목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민족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기

보다는 ‘민족어’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어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는 측면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지식” 습득의 목적에 있어 남북의 질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남한은 자아 인식에서, 타인 교류, 문화 향유, 민주시민 소양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장 이행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상급학교 국어교육의 기반을 갖추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셋째, 소학교 국어과목이 중학교의 기초과정임은 남북한 공통이다. 그러나 남한의 국어과목 성격에 국어교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99). 북한 역시 초급중학교 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수학능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제도적인 면을 보면, 첫째, 남한은 ‘민주시민’이라는 글로벌 수준에서,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이라는 자기문화적인 성향이 보인다. 즉, 북한은 ‘말과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 정신’ 주입이라는 사회제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남북 교수 목적에 있어서, 남한은 학생 에이전시 측면이, 북한은 협력 에이전시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 남한은 “학습자는...인식하고...이해한다...교류하며...형성하고...향유하면서...기른다”로 명시함으로써 교수 목적이 교사 주도가 아닌 학습자 주도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학생들에게...심어주고...키워주며...갖추어줌으로써...받을 수 있는...키워주는데 있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교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여전히 교사가 중앙에 위치하여, 학생은 수동적 존재로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초등 국어과목 교수의 목표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남북한 초등/소학교 <국어>과목 교수의 목표

남한	북한
국어 의사소통의 맥락과 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면서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국어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을 기른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도록 한다. 읽기 및 쓰기, 듣기, 말하기, 글짓기의 기초지식과 기능을 체득시키도록 한다.

남북한 초등 국어과목 교수 목표를 대조적으로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발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한의 ‘국어’는 북한의 ‘우리말과 글’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라는 표현에서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남한은 국어교육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국어 의사소통의 맥락과 요소 이해’라는 표현으로, 북한은 ‘읽기 및 쓰기, 듣기, 말하기, 글짓기의 기초지식 체득’이라는 리터러시 역량을 공통적으로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맥락과 요소’라는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접근이, 북한은 상대적으로 교육범위가 분화된 기초 영역별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한 공통적으로 소학교 학생이 국어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스킬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즉, 남한은 ‘언어생활 성찰’,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 ‘국어문화 향유’로서 자기를 이해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글로벌 역량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국어교육에 의한 지식과 ‘기능 체득’으로 핵심 기반 역량 강화를 목표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제도적인 관점에서, 초등/소학교 국어교육 목표의 가치에 대한 남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남한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이라는 시

공간적인 지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 빛내여 나가려는 아름다운 품성 소유’라는 표현으로서 도덕윤리적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윤리적 기반은 OECD 2030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국가는 문화 및 역사, 사회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OECD, 2019, 47).

상기와 같이 남북 간 초등 국어교과의 정의, 목적, 목표를 발달-사회제도적 필터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북한 교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교류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남북 미래의 웰빙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해 상호 존중의 태도와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필터를 제시하였다.

2.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 적용 : 인지적 기반, 사회정서적 기반, 학생 및 협력 에이전시

<표 5>와 <표 6>에 제시한 북한 소학교 국어과목 교수의 목적과 목표를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에 적용해 보았다<부록 1>.

북한 소학교 국어과목 교수의 목적과 목표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인지적 기반인 지식에서는 과목별, 과목간 지식, 사회적 및 정동적 기반인 스킬에서는 책임성/자율성·인내, 태도/가치에서는 원리/믿음·신뢰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제도적인 도덕윤리적 기반은 목적과 목표에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필터 결과는 남한의 교육과정에 대한 OECD 2030 반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비교할 수 있다(김은영, 최수진, 김경자, 황규호, 박은영, 2016; 이상은, 2019; 김종윤 등, 2020).

또한,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에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 기사를 적용하여 제시하였다<부록 2>. 참고로, 북한 소학교 학생의 학령은 6세~11세

로, 이는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전환기적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Crain, 2012). 북한에서도 이 시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지도를 위해 가정 및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박정철, 조광철, 김일봉, 심철, 2016). 특히, 식량난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정보산업 시대 및 지식경제 시대에 걸맞는 인재의 질적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소학생의 심리를 이해하고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정 및 학교, 사회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유시은, 2019b, 40).

<부록 2>를 보면, 상단에 OECD 2030의 인지적 기반, 사회적/정동적 기반, 도덕윤리적 기반, 에이전시에 따른 세부 항목이 놓여있다. 연구자는 이 필터를 통해 해당 인민교육 원문을 이해하였다. 즉, 북한 특성인 도덕윤리적인 기반은 우선 소거하고, 그의 문장에 대하여 OECD 2030 사회제도적 필터로 구분하여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이해하였다.

<부록 3>은 인민교육 기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교수안을 필터에 적용한 것이다. 교수안 제목은 “합친모임을 다져보자”이다. 상단의 필터를 통해 학생의 인지적 기반, 사회정서적 기반, 에이전시를 파악하였다. 또한, 교실환경에서의 협력 에이전시와 북한 사회의 도덕윤리적 기반 또한 읽어낼 수 있었다.

<부록 2>와 <부록 3>에 대한 필터 결과는 남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3~4단원을 참조하여 비교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생소한 접근이라 여길 수 있으나, 불확실한 글로벌 사회 및 남북 사회통합,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래 통일학 세대에게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동기에서 출

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남북 사회 통합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교육 국어교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의 준비 및 운영역량의 디자인으로서, 미래 통일학 세대의 소통스킬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공유공간은 글로벌 규모의 OECD 2030 “공유공간” 개념을, 한반도 지역의 남북간 실정에 적합하게 원리 적용하였다. 또한,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통조력 도구를 디자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성 원리와 OECD 2030을 기반으로 한 공유공간에 대한 적합성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했다. 둘째, 소통스킬의 상태 변화과정을 순서도로 제시했다. 셋째, 소통조력 도구로서 “발달-사회제도적 필터” 및 16개 변인으로 구성된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를 디자인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에 대한 필터 적용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 간 교육 통합뿐만 아니라 남한 내 다문화 및 세대 간 소통스킬을 제고하는 관점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지향에 적합한 소통스킬을 갖춘 통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미래 통일학 소통세대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류세대가 소통세대로 변형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통스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 반성과 기제가 필요하다. 즉, 기성 교류세대의 소통은 아동 발달 및 사회제도적인 면을 고려한 상호 존중 원리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송두울 1998; 김성민, 박영균 2011; 박영균 2010; 이병수 2011, 2013; 유시은 2019b; 남완우 2021; 유시은 2022). 우리의 현실은 남북간 사회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 원전을 분석하거나 대북 교류, 북출신 주민을 이해하기 보다는 북한의 이미지를 남한의 시선에서 창조하고 재생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병수 2011; 진선희 2016; 권순희 2018; 이병희 2019; 권재일

2019). 20세기 분단의 긴장을 해소하고 21세기에 남북이 만나기 위해서는 교류세대의 변형으로써,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에 의한 소통스킬 준비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필터를 통해 남북의 특수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각 지역·국가의 문화적 기반을 상호 존중하는 도덕적 및 윤리적 기반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반 등을 문화 통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통세대의 소통스킬 준비를 위한 기반적인 리터러시가 갖춰져야 한다. 지금까지 교류세대는 대북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은 시도했지만, 전문 분야에 따른 하향식 기제로 대화하다보니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전미영, 2010; 이현희, 2020; 정병화, 정계현, 조광규, 2022). 본 연구가 남북 공교육의 공용어인 한글을 접점으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에 OECD 2030을 적용한 것은, 아동 발달이 인류의 공통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의미와 감정, 즉 패턴을 이해하는 소통은 언어라는 기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언어를 발화하는 인간 발달은 남북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공통적이다. 이에 소통세대의 역량을 준비함에 있어서 발달이론, 이에 따른 문제해결 역량 등의 리터러시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한 소통 공간 확보 및 그 확대가 필요하다. 소통의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마인드셋에 의한 직관적 처리가 불가하여 합리적 처리가 요청된다는 신호이다. 이때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인간은 일상적 사이클에서 창조적 사이클로 이행하여 탐색, 발견, 인큐베이트 및 확증한 후 다시 일상적 사이클에서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Barker, 2012; Arimoto, 2019). 지금까지 통일 논의를 위해 많은 토론과 학술세미나 등이 진행되었으나, OECD 2030의 소통스킬을 겸비한 안전한 공유공간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소통 공간이 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실천적, 그리고 도덕윤리적인 차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공유공간은 미흡했던 것이다. 이

에 문화적으로 민첩하고 창조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소통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소통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형태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학술세미나는 몇몇 기성 교수들에 의해 기획되어 개최된다. 이러한 학술세미나는 주제 및 그 진행에 있어서 인지도를 담보할 수 있으나, 자기 변형의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OECD 2030 역량으로 육성된 후속 세대와 기성 세대 간 공유 가능한 논문뿐만 아니라, 소통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소통세대 육성 프로젝트를 위한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기존 통일학 관련 과정은 교류세대에 의한(by) “교류세대의 재생산”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북주민과 질적 소통이 불가능한 “교류세대의 복제”에 불과하다. 이에 OECD 2030 필터를 장착한 소통세대를 육성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여 문화적 민첩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육성된 소통세대는 남북 주민간 소통 인제가 되어, 국내 다문화/다인종 및 해외 다문화 코리언과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학의 지속발전 가능성, 일자리 확대와도 직결될 수 있다.

여섯째, 소통세대가 기간적 소프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을 주도하는 질적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OECD가 발표한 2060년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30~2060년에 OECD평균인 1.1%보다 낮은 0.8%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보고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중앙일보, 2021. 11. 08).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이주민 확대 등의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성장을 위한 소프트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적인 맥락 속에 교류세대가 학생 및 협력 에이전시으로써 성장한다면, 남북 주민의 소통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팀웍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변형은 교류세대 뿐만 아니라 웰빙을 지향하는 모든 공교육세대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 나아가 다문화·다인종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이다.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1998). 탐구 1, 서울: 새물결.
- 강미경 (2000). 관련성 원리에 입각한 대화합축과 맥락합축, 언어연구, 16(2), 5-22.
- 강보선 (2013). 북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 연구, 화법연구, 22, 259-284.
- 강보선, 김진숙, 박수련 (2016).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연구, 62,
- 강은영, 권민호, 유현욱 (2022).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를 활용한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7(1), 23-49.
- 고유환 (2015).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4(1), 29-54.
- 고정희, 김종철, 구본관 (2015). 남북한 초, 중, 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 학습 내용 선정 및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6.
- 교육부 (2022).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별책 2].
- 국지연, 이성범 (2007). '말해진 것'의 명시의미: 적합성이론 분석, 담화와 인지, 14(2), 1-25.
- 권순희 (2018).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63(3), 5-47
- 권순희, 강보선, 주재우 (2017). 남북한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63, 5-27.
- 권순희, 주재우, 김윤정 (2018).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 천재교육
- 권재일 (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재일 (2019).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새국어생활, 29(4).
- 김경진, 김동수, 김신곤 (2023). 북한보건의료 연구와 교류협력: 북한 학술지를 통한 보건의료 연구와 창의적 교류협력,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광수 (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서울: 역락.
- 김문오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서울: 국립국어원.
- 김문오, 진수태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김미현, 김재범 (2015). 남한 예술 활동 참여가 북한 이탈주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예술경영연구, 34, 65-90.
- 김석우, 최태진, 박상욱 (2016).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선철 (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서울: 국립국어원.
- 김성민, 박영균 (2011).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사회, 92, 143-172.
- 김영수 (2006).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50, 25-54.
- 김윤정 (2020). 남북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드러난 집단 커뮤니케이션 양상 -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와 북한 소학교 1학년 교과서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12), 843-873.
- 김윤정, 권순희 (2018). 남북한 중등학교 읽기 영역

- 의 교육 내용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 교육강령'을 대상으로, 독서연구 48, 203-245
- 김중윤 (2019).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1단계 성과 분석: 교육과정 정책 및 교육과정 내용 맵핑(CCM)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부,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중윤, 옥현진, 조재운 (2020).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OECD Education 2030 역량 반영 양상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3(3), 1-22.
- 김진숙 (2016). 남북한의 최근 개정 교육과정 총론 비교, 교육과정연구, 34(2), 47-67.
- 김진숙, 박은아, 정채관 (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5-10.
- 김진숙, 김창환 (2015). 독일의 1990년 통일 전후 과도기의 교육과정 통합, 비교교육연구 25(6), 51-77.
- 김태욱, 이현욱 (1995).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 김화옥, 리란희, 김영희 (2013). 국어교수안: 소학교 제1학년, 평양,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김희정, 김선 (2018).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통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6), 1,643-1,654.
- 남완우 (2021).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4), 387-408.
- 데일리NK (2011. 04. 01). 위기의 북한학과...폐지·통폐합에 2개 학교만 남아.
- 박영균 (2010). 분단을 사유하는 경계인의 철학: 송두율의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철학연구, 114, 57-83.
- 박영균 (2013). 통일의 인문적 비전-소통으로서 통일론, 시대와 철학, 24(3), 211-236.
- 박영혜 (2019a). 북한 의학 학술지 분석을 통한 대북의료지원 준비-어린이 설사증을 주제로, 2019년 통일보건의학 세미나 자료집, 3-18. 서울, 고려대학교.
- 박영혜 (2019b). 북한 의학 학술지 '소아-산부인과' 논문분석을 통한 대북의료지원 준비, 건강한 한반도를 지향하는 통일보건의학 심포지엄, 71-82. 서울, 고려대학교.
- 박영혜 (2021). 북한 어린이 설사증 현황분석 및 보건의료 지원방안: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해숙 (2019a). 자생적 시장경제(장마당)가 북한 결핵에 미친 영향, 2019년 통일보건의학 세미나 자료집, 19-49. 서울, 고려대학교.
- 서해숙 (2019b). 북한의학 학술지를 통한 결핵 연구 동향 분석, 건강한 한반도를 지향하는 통일보건의학 심포지엄, 83-103. 서울, 고려대학교.
- 송두율 (1998). 21세기와의 대화, 서울: 한겨레신문사.
- 신중진, 정중수, 김유진 (2015).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 수학 및 자연과학분야, 서울: 국립국어원.
- 신중진, 김성민, 김유진 (2016). 2015 남북 전문용어 구축, 서울: 국립국어원.
- 아시아기자협회 (2014.10.26.). 세계북한학대회 28~29일 연세대서.
- 유시은 (2019). 최근 북한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연구에 대한 탐색적 고찰, 미래사회, 10(1), 29-44.
- 유시은 (2019a) 최근 북한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관련 연구의 탐색적인 분석 연구, 2019년 통일보건의학 세미나 자료집, 51-71. 서울, 고려대학교.
- 유시은 (2019b) 교육심리학적 접근으로 본 최근 북한 소학교의 창조형 인재 양성, 건강한 한반도를 지향하는 통일보건의학 심포지엄, 35-62. 서울, 고려대학교.
- 유시은 (2022). Kcube하모니 파렛트 현장 경험을 통한 건강한 한반도의 소통심리상담, 현대사회

- 와 다문화, 12(4), 159-176.
- 유시은, 아리모토 슌, 김윤영 (2018).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사례 심층연구, 연구총서 2018-12, 서울: 남북하나재단.
- 유진아 (2019). 남북출신청년들의 동반 여행 경험 내러티브 탐구, 문학치료연구, 50, 133-161.
- 이미경, 서지영, 이근호 (2018).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내용 맵핑 참여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병수 (2011).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52.
- 이병수 (2013). 남북관계에서 소통과 치유의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43.
- 이인제, 최미숙, 송현정 (2000). 남북한 초·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향근 (2018). 북한 김정은 체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과 수록 제재의 특성 분석, 교육연구, 73, 23-41.
- 이현희 (2020). 남북민간교류의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6(1), 191-223.
- 인민교육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6, 4, 평양: 교육신문사.
- 전미라 (2021). 북한 치의학의 이해와 통일 치과 연구자 양성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영 (2010)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북한학연구, 6(1), 21-39.
- 전수태 (1992), 북한의 국어 교과서 분석, 북한의 언어 정책,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전수태 (2010). 남북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 분단국의 통일 공간과 교육 용어, 국어교육 131, 1-8.
- 전영선 (2015). 북한의 언어 - 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언어, 성남: 경진.
- 정병화, 정계현, 조광규 (2022).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 '분권형 대북정책', 법과 정책연구, 22(4), 147-170.
- 조명철 (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앙일보(2021. 11. 08). “韓 203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0.8%”...OECD 공동 풀찌.
- 진용성, 김병수 (2022). 통일초등국어교육 콘텐츠 탐색 연구 - 국내 통일교육용 누리집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8, 7-34.
- 진용성, 차해나 (2018).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3)와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7)의 비교 연구, 청람어문교육, 66, 59-83.
- 최기선 (2001, 2002, 2003),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서울: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최기호 (2008).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국어단체연합.
- 최용기 (2007).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199-228.
- 최용기 (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인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최현섭, 이인제, 최영환 (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서울: 역락
- 한국일보(2017. 04. 01). 한곳만 남은 대학 북한학과.
- 한준희 (2019).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적 지원 과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통일보건의학 세미나 자료집, 73-87. 서울, 고려대학교.
- 한준희 (2020). 북한 보건의료기관 동향 및 협력대상으로서의 함의: 2017-18년 [노동신문] 다빈도 보도 5개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표, 진용옥 (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국어정보학회·문화체육부.

- Adler, M. J. (1972). *How To Read A Book*, Touchstone. Books.
- Alan, B. (2012). *How to solve almost any problem*. Dorchester: Pearson.
- Arimoto, S. (2021). 가정, 공동체 그리고 공교육이 함께 창조하는 문제해결자 생태공간. 서울: 브릿지 퀴투플.
- Bredford, S. C. (1934). Sources of information on specific subjects. *Engineering*, 137, 85-86.
- Deniel S. (2020). *A World Without Work: Technology, Automation, and How We Should Respond*,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김정아 역), 서울: 와이즈베리.
- Ginsburg, H., & Oppen, S. (1988).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3rd ed.). Prentice Hall.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Vol. 3. Academic Press.
- Grice, H. P. (1986).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seph, E. A. (2017). *Robot-proof: higher educ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IT Press.
- Kohlberg, I.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Harper & Row.
- Marc Prensky (2018). *Education to Better Their World*,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 문제 풀이 수업에서 문제 해결 교육으로, 개인적 성취에서 사회적 실현으로(허성심 역). 서울: 한문화.
- Ntiri, D. (2009), Toward a foundational and culturally salient definition of literacy, *Adult Basic Education and Literacy Journal*, 3(2), 97-104.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A SERIES OF CONCEPT NOTES*.
 투고일자: 2023. 12. 31.
 심사일자: 2024. 1. 23.
 게재확정일자: 2024. 2. 1.
- Piaget, J. (1964). *Six psychological studies* (A. Tenzer & D. Elkind,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68.
- Salmela-Aro, K. (2009). *Personal goals and well-being during critical life transitions: The four C's—Channelling, choice, co-agency and compensation*,
- Sperber, D.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Taylor Pearson (2015). *The End of Jobs*, 직업의 종말(방영호 역), 서울: 부키.
- van Dijk, T. A. (1971). *Moderne Literatuurtheorie*. Amsterdam: van Gennep.
- William, C. (2012). *Theories of Develop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Fifth Edition, 발달의 이론 : 개념과 적용 제5판(송길연, 유봉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Exploratory Study of a Future Communicable Generation Design Based on OECD Education 2030: Focused on First-Grade Korean Content in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Shieun Yu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 to qualitatively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skills of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study Unification as a prepare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 “shared space” for exchange in public education language courses. This is a priority need for future inter-Korean social integration. The shared space is an application of the OECD 2030 “shared space” concept on a global level by adapting its principles to the situ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also designed communication facilitation tools that can be used in the spa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evance principle and the conformity model for shared space based on OECD 2030 were expressed in formulas. Second, a flow chart is presented of the state change process of communication skills. Third, a “development-social and institutional filter” was designed as a tool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the “OECD 2030-social and institutional filter” was created, comprising 16 variables. Finally, the application of the two filters to the first grade Korean subject in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is presented.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the communicable generation.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shift perspectives not only on education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ns, but also on enhancing multicultural and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skills in the South, and it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fostering unified human resources with globally-oriented communication skills.

Keywords: Communicable generation design, OECD Education 2030, Shared space, tool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OECD 2030-Social and institutional filter

부 록

부록 1. OECD-사회제도적 필터 : 북한 소학교 국어과목교수의 목적과 목표

	구분	인지적 기반			사회정서적 기반										NK	에이 전시	
		지식			스킬							태도/가치					
		과목별	과목간	인지/메타인지	사회/정서적			신체/실천적		k	l						
					f	g	h	i	j								
a	b	a+b	c	d	e	f	g	h	i	j	k	l	s	co			
목적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 애국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다정 다감한 정서를 키워주며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초보적인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 줌으로써 초급중학교 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	0	0	0	0						0		0	0	0	0	
목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도록 한다. 읽기 및 쓰기, 듣기, 말하기, 글짓기의 기초지식과 기능을 체득시키도록 한다. 읽기 및 쓰기, 듣기, 말하기, 글짓기의 기초지식과 기능을 체득시키도록 한다.	0	0	0	0						0		0	0	0	0	

* 참고 : a=말하기/듣기, b=읽기/쓰기, a+b=말하기/듣기+읽기/쓰기, c=책임성/자율성, d=창의성, e=관찰, f=대답, g=발표, h=토론, i=인내, j=제스처, k=원리/믿음, l=신뢰, nk=도덕윤리적기반, s=학생, co=협력

<부록 2> OECD 2003-사회제도적 필터 :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력을 적극 계발시켜 -강동군 하리소학교 라춘옥동무의 교수사업에서”

구분	인지적 기반			사회정서적 기반								NK	에이 전시			
	지식			스킬											태도/가치	
	과목별	과목간	인지/메타인지	인지/정서적			사회/정서적			신체/실천적					k	l
				c	d	e	f	g	h	i	j					
a	b	a+b	c	d	e	f	g	h	i	j			s	co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0			
<교수를 깨우쳐 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줄 수 있으며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능동적으로 사고하여 교수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0		0									0		0 0	
강동군하리소학교 교원 라춘옥 동무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력을 적극 계발시켜 교수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0											0 0	
교수에서성과를 거두자면 인식의 주체인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도록 그들의 능동적인 사고력을 적극 계발시켜야 한다.		0		0									0		0 0	
그러면 춘옥동무가 진행한 소학교 국어교재에서 름습 <<H, H, H, H>>를 문장속에서 다지기>>수업을 놓고 보자.		0													0	
교수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H, H, H, H>>가 들어간 단어 찾기와 그와 어울리는 말마디들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는데 있다.		0			0										0 0	
교수자는 우선 학생들에게 이 시간에 배우게 될 학습내용을 알려준 다음 여러 가지 간단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H, H, H, H>>가 들어간 단어들을 서로 토론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0	0	0	0			0	0					0		0 0	
여기서 교수자가 의도한 것은 첫째로는 학생들이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통하여 알맞는 단어들을 자체로 선택하여 찾게 하자는데 있으며 둘째로는 학생들 사이에 토론분위기를 세워 학습의욕을 높여주고 보다 충분한 사고를 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0	0	0	0	0	0									0 0	
교수자는 미끄럼대, 비행기, 노래, 제기차기, 시계, 예술체조 등 학생들이 찾은 단어들을 칠판에 써넣으면서 그들의 대답을 긍정해주었다.		0					0						0		0 0	

다음으로 교수자는 학생들이 찾아낸 단어에 대한 따라 읽기를 시키면서 이 단어들이 어떤 말마디들과 어울리는가를 그림에 기초하여 대답하도록 하였다.			0		0		0											0	0
학생들은 그림을 보면서 《제기차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미끄럼대를 탑니다.》, 《예술체조를 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등 어울리는 말마디들을 저저마다 찾아 내었다.			0		0		0											0	
교수자는 학생들이 찾은 어울리는 말마디들 즉 《합니다, 날아갑니다, 탑니다, 봅니다, 부릅니다》 등을 이미 칠판에 써넣은 단어들 옆에 차례로 써 넣었다.			0																0
이어교수자는 학생들이 찾은 단어와 어울리는 말마디들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문장을 완성하게 하였다.	0	0	0		0		0											0	0
교수자는 학생들이 완성한 문장들을 평가하면서 《합니다》, 《봅니다》와 같은 말마디들에 더 연결할 수 있는 단어들 있겠는가고 물었다.	0				0													0	0
이것은 하나의 단어에도 그와 어울리는 말마디들이 많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사고하면서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0		0		0						0					0	0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봅니다》와 《합니다》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었다.	0				0													0	0
학생들은 서로 토론을 벌려 《비행기를 봅니다.》, 《예술체조를 봅니다.》, 《예술체조를 합니다.》 등 《봅니다》와 《합니다》와 같은 말마디들의 쓰임과 그 특성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0	0	0		0		0			0			0		0			0	
이렇게 되니 학생들은 단어 활용과 문장 만드는 능력을 높게 되고 짧은 글짓기를 능숙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0		0		0						0					0	
경험은 교수활동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력을 적극 개발시킬 때 그들이 교수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게 되고 학습의욕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0		0			0			0					0	0

* 참고 : a=말하기/듣기, b=읽기/쓰기, a+b=말하기/듣기+읽기/쓰기, c=책임성/자율성, d=창의성, e=관찰, f=대답, g=발표, h=토론, i=인내, j=제스처, k=원리/믿음, l=신뢰, nk=도덕윤리적기반, s=학생, co=협력

<부록 3> OECD 2030-사회제도적 필터 : 국어교수안-소학교 1학년, “합친모음’을 다져보지요” 단원, 둘째시간.

구분	인지적 기반			사회정서적 기반								NK	에이 전시			
	지식			스킬						태도/가치						
	과목 별	과목 간	인지/메타 인지	인지/메타 인지			사회 정서적			신체/ 실천적					k	l
				c	d	e	f	g	h	i	j					
a	b	a+b	c	d	e	f	g	h	i	j			s	co		
교수목적: 이 과의 시 1,2권을 정확히 읽고 쓰도록 하는데 있다.	0	0	0													
준비및 련관: △ 참고자료: 《소년신문》, 주체102(2013)년 4월 30일부 △ 교편물: 문장읽기지도를 위한 걸그림 또는 소칠판, 본보기글씨걸이 그림															0	
교수흐름 (1)런습준비 O학생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희망을 꽃피워주시는 분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십니다.	0													0	0	
(2)런습진행: 이번시간에는 우리 희망, 고운 꿈을 담은 시편을 배우겠습니다.	0														0	
칠판글: 우리 희망 무얼가		0													0	
오늘은 시1,2권을 큰소리로 읽고 쓰는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0	0	0											0	0	
-첫 읽기																
교원의읽기(1, 2권)	0													0	0	
-단어의 읽고 쓰기																
•읽기																
애들어[애드라], 말해보자[마래보자], 희망[히망], 무얼가[무얼까]		0													0	
교원의읽기, 따라읽기, 시켜읽기	0	0	0											0	0	
•쓰기																
(본보기 글씨걸그림을 보여주면서 세운글자, 눌힌글자, 받침글자 쓰기규범을 문답할 수 있다.) 교원의 쓰기, 보고쓰기		0												0	0	
-문장읽기																
(문장읽기지도를 위한 걸그림 또는 TV 리용)															0	

